

고흥군 '드론·UAM 엑스포' 성료...항공산업 도약

〈도심항공교통〉

항공센터 일원서 3일간 열려
현대자동차·롯데·대한항공 등
71개 기업 참여 콘텐츠 선 보여
가상현실 체험·시연 등 인기



2023 고흥 드론·UAM 엑스포에서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시연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드론·UAM 엑스포 실증도시로 비상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열린 2023 고흥 드론·UAM 엑스포가 고흥이 드론·UAM(도심항공교통) 실증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엑스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UAM존과 드론존으로 구역을 나눠 '고흥 드론·UAM과 함께 미래를 현실로'라는 주제로 고흥항공센터 일원에서 개최됐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 71개 기업이 참여했다. 현대자동차, 롯데, 대한항공, SK텔레콤 등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린드래질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우수한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K-UAM참여기업 전시관에서는 UAM 기체와 버티하브 모형, UAM 예약플랫폼, 안전 자율주행차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UAM 가상현실 체험은 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UAM존 구간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버티포트(수직이착륙 비행체의 터미널)와 신속 보안검색장비, 최신 스마트 인증장비를 갖춘 세계 최초의

UAM승객 터미널은 엑스포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엔 충분했다.

고흥드론센터에 마련된 드론존 실외 체험장에는 매일 2차례씩 국내기술이 90% 이상 적용된 비행 시연이 실시돼,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드론 특별전시체험관에 마련된 가상현실 체험공간과 드론 실외 체험장에 마련된 팍드론, 드론볼링, 로봇코딩은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큰 인기를 얻었다.

드론존에서는 국내 우수기업인과 산업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컨퍼런스 비즈니스 데이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고, 드론시연 행사가 펼쳐져 드론을 잘 모르던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엑스포로 우주와 드론 산업에 이어 UAM 항공산업 선도 도시로 고흥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업체 참여 증대와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들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적인 엑스포 행사로 확장하고, 수출상담회 등 산업 엑스포로서 기능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백운산자연휴양림 활성화 광양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다자녀 가구 이용 혜택 확대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야영장 입장·사용시간과 휴관일 변경과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의 이용, 주차료 면제를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휴양림 야영장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10시로 변경했으며, 휴관일을 둘째, 넷째 화요일에서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 주차료와 관련 시설이용객 중 야영장 이용자들만 주차료를 받았는데 이를 면제하고, 지역민과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들의 주차료 면제도 신설해 이용객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규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숙박동 27동 43실, 카리반, 자동차야영장, 야영장(데크)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휴양림 이용시간은 시설이용객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민·관 노력으로 학생수 15명→23명 증가 폐교 위기 보성 문덕초 농촌 유학 1번지로

마을 인구도 3년 연속 늘어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보성군 문덕초등학교가 유학생 유치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으로 활력을 찾아 주목을 받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15명에 불과하던 문덕초등학교 전교생이 올해 23명으로 늘었다.

학생 수 증가와 함께 문덕면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문덕면 인구는 2019년까지 9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말 886명으로 감소했다. 민·관의 노력과 함께 2021년 말 893명, 지난해 말 918명, 올해 현재 928명으로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보성군은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민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원들이 사용하던 관사와 빈집·마을 쉼터 등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공간 4곳을 수리한 뒤 유학생 가족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했다. 배드민턴 교실·댄스 교실·바리스타 교육 등 유학생 가족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여원을 확보, 모뎀러 주택 신축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문덕면과 겸백면에 총 8동의 주택을 신축 중이다.

면민회장은 학교 운영위원장이 돼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생활을 알리는 등 흥



지난 2일 전남 보성군 문덕초등학교에서 열린 문덕면 어울림 한마당. <보성군 제공>

보 활동에 집중했다. 박선희 문덕초등학교장은 "폐교 위기 속 많은 분

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 문척면 주민 10명 중 9명 "양수발전소 유치 지지"

수몰 예정 10가구 모두 동의서 제출

구례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발전소 예정지인 문척면 주민 93.4%가 '양수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문척면 전체 주민설명회를 했다. 설명회 후 면사무소를 통해 문척면 1274세대 1274명 대해 유치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1190명이 유치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에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구례와 곡성, 경남 합천, 경북 봉화과 영양, 충남 금산 등 6개 지자체다. 발전 사업의 경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수용성이 사업 대상지 선정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례군의 발전소 예정지인 문

척면 전체 주민의 93.4% 동의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구례군은 설명했다.

문척면 내에서는 발전소 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수몰 예정지 10여 가구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유치로 6000억원의 사업비가 지역에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 및 100개 이상의 상시 일자리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구례군은 구례 양수발전소 입지 예정지에 345kW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양수발전소 건설 후 추가적인 송전탑 설치 필요 없고, 송전탑 추가 건설 비용이나 2차 민원 발생이 없어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24차례의 설명회와 견학을 추진해 왔다"며 "양수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고, 양수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10일~12월 10일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 7개 지역 800가구 순차 단수

여수시가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1일간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일부 지역 단수가 불가피하며 비상용 물 저장 등 대비를 당부했다.

여수시는 깨끗한 수도를 공급을 위해 관내 배수지·가압장 42개소에 물탱크 청소·소독을 진행하고 시설물 점검과 보수도 실시해 안전한 급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배수지별로 순차적으로 청소를 진행해 안정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물탱크가 2개인 배수지는 각 물탱크별로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진행한다.

물탱크가 하나인 일부 배수지의 경우, 단수가 불가피해 7개 지역 약 800가구가 단수될 예정이다.

단수 일정은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현암도서관 일대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교빌리지빌라 일원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암택지지구 일원이다.

이어 12월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두마을 일원 ▲5일 같은 시간 자산공원 일원 ▲6일 구봉중학교 일원 ▲7일 무지개아파트 건넌편 주택단지 일원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